

EU 2007년 1월 1일 이후 대상사업 부가 방침

유럽연합(EU)은 공해유발 기업들에 대해 환경상 피해의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마련, 공개했다.

리트 브제레가르드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환경법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적용될 대인, 대물 등 모든 종류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그러나 EU가 최소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럽회의의 루가노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이나 이 법이 생태환경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EU내에서는 그동안 환경규제 법안에 대해 업계와 독일, 프랑스, 영국이 특히 반대해 왔는데 집행위가 입법조치에 본격 나서게 됨에 따라 업계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유럽회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등은 집행위의 이번 제안을 적극 요구해왔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집행위의 이 법이 다른 나라들에서 보듯이 기업들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기업들의 환경오염과 관련,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는데 대부분 EU 회원국들은 이제까지 기

업들이 민사상 또는 행정상 환경오염에 대해 제소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주체, 환경오염의 입증책임 등 사항에 대해 각 국가마다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보다 조화되고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위측은 전했다.

필리핀 수빅-클라크지역 환경오염 심각

과거 필리핀의 미 해군기지인 수빅과 공군기지인 클라크의 토양, 수질 오염이 심각해 정화작업에만도 각각 10억달러씩 모두 2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필리핀의 일간 투데이지가 4월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회계감사원(GAO)의 '필리핀의 군사기지폐쇄와 미국의 재정적 의무'라는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지난 91년 이후 미환경연구관과 국방부, 해군, 공군,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각 조사해 발표한 여러 보고서에도 수빅과 클라크의 많은 지역이 미군 시설로 인해 유해독성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미해군보고서를 인용, 수빅의 경우 미군주둔시 지상에 2백만갤런, 지하에 7만4천갤런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모두 84개의 탱크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76개는 25년이상 낡은 것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검사도 받지않은 채 방치돼왔다고 지적하고 이들 유류탱크에서 흘러나간 기름이 토양과 수질을 극도로 오염시켜온 것으

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WHO보고서를 인용, 수빅의 32개 미군 주둔지중 15개 주둔지가 고도의 잠재적인 환경오염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WWF 인터넷 통한 지구살리기 운동

세계 환경 보호론자들이 2000년을 약 1천일 앞두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야생생물들을 멸종위기에 구하기 위해 급기야 인터넷에까지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같은 '지구살리기운동'을 '제2의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4월 4일 0시(한국시간)를 기해 인터넷에 지구살리기운동 웹사이트(WWW.WORLDWILDLIFE.ORG/ACTION)를 개설, 환경 및 야생생물에 관한 각종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의 주된 목적은 우선 금세기말까지 수백만종의 야생동식물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구해내는 것.

"GLOBAL 200"이란 이름의 이 운동은 WWF의 야생생물 보호전략에 있어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글로벌 200이란 환경오염이나 경제개발로 인해 세계각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들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2백개 지역이 아니라 2백32개 지역으로 되어 있다.

WWF는 3년간의 노력 끝에 알래스카 북극 툰드라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열대림에 이르기까지 전세

계에 걸쳐 파괴위기의 동식물 서식지 2백32개소를 선정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 급변하는 삼림황폐화와 오염확산 등 지구의 환경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WWF 작성 2백32개 지역리스트에는 북미의 경우 플로리다주 남부 대소택지인 에버글레이즈와 클래머스-시스키유 침엽수 삼림시대 등이, 남미에서는 안데스산맥 서부 초코지역을 비롯해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판타날 습지대 등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 가봉, 적도 기니, 콩고, 나이지리아의 세계최대 콩고강 연안 밀림지대와 동아프리카 해양생태계, 마다가스카르의 열대림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중해 해양생태계와 호주동부의 담수강들과 개울 등도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우림, 히말라야 고지, 중국 남부 운남성과 사천성의 온대성 삼림 등이 포함돼 있다.

카스린 플러 WWF회장은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종의 동식물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 유형도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아직 지구 곳곳에 이들중 일부를 구할 시간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은 포유동물의 절반과 수천종의 육상동물, 어류, 식물이 다음 세기에 멸종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지구살리기운동에는 엘 고어 미부통령, 몽골대통령과 그루지야 대통령이 이미 참여서명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포유동물의 절반과 수천종의 육상동물, 어류, 식물이 다음 세기에 멸종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WF는 세계 지도자들외에도 프리랜서 환경보호론자와 초등학교 등 모든 사람이 동참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다뉴브강 댐 옥에 생태균형 파괴

냉전 절정기에 건설된 다뉴브강 댐이 규조류를 파괴하는 등 흑해의 생태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철의 문" 댐이 다뉴브강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이댐이 8백km 떨어진 흑해의 생태균형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 루마니아 양국 과학자들의 최신연구로 처음 밝혀졌다.

함부르크대 해양화학자 페누고 팔란 이테코트 교수와 그의 루마니아 동료들은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철의 문" 댐 뒤에 갇힌 물과 침적물로 말미암아 비단 강과 인접 해안뿐만 아니라 흑해 해분 전역의 생화학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다뉴브강은 흑해로 흘러드는 물의 약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의 주요변화는 흑해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테코트 연구진은 지난 70년대초의 댐 건설이후 흑해 표면의 수질 검사 결과 규소용해물 검출량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규소 용해물은 댐 뒤의 저수지에 서 플랑크톤에 의해 흡수돼 침적물로 축적된다. 그러므로 다뉴브 강물이 흑해와 만날 때 썩으면 규소는 고갈되고 질소와 인이 풍부한 물로 바뀌며 이에 따라 흑해 해저 생태계의 먹이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은 무성해지지만 규조류와 같은 다른 종은 멸종되다시피 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규조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버지니아 해양학연구소의 존 D.

밀리먼 박사는 이 연구보고서와 함께 실린 논평을 통해 새로운 연구가 강 어귀와 해안뿐만 아니라 흑해와 같은 바다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원을 규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세계 2위 다이옥신 오염국

러시아가 독성이 강한 유기염소 화합물인 다이옥신에 세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국가지만 당국이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4월 1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에서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러시아 대도시들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지만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자료접근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러시아 의학원의 베니아민 쿠들레이 박사는 “러시아 영토의 약 4분의 3이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고 말하고 “전쟁을 겪은 베트남이 아마 최악의 오염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은 '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월맹군에게 은신처 역할을 한 정글을 없애기 위해 다량의 고엽제를 살포했었다.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화학 공장과

쓰레기 소각로가 다이옥신 오염의 주범이며 러시아는 다이옥신 허용기준이 미국과 독일보다 2천배나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특히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백km 떨어진 체르진스크가 아마 세계최악의 다이옥신 오염도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르진스크는 약 10여개의 대규모 화학약품공장이 있는 곳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체르진스크에는 건강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며 평균수명도 50세 이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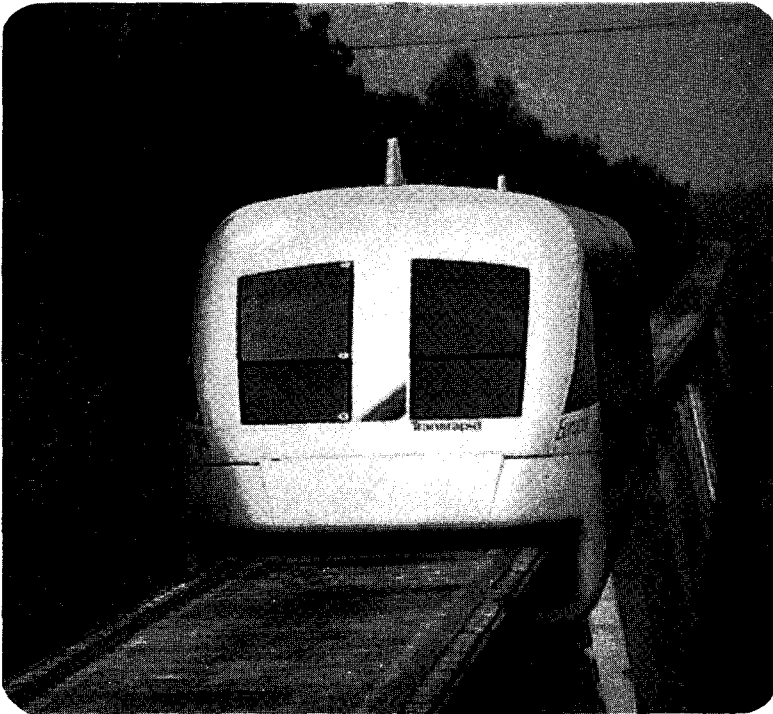
환경보전 시장 2000년에 연 5%씩 성장

공해억제를 위한 각종 서비스 활동과 제품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오는 2000년에 가면 연간 5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엔개발계획(UNDP)측이 예상했다.

UNDP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제공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UNDP는 공해를 억제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보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오는 200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연간 5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NDP는 세계 환경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선진 공업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67%인 것으로 보고 있다.



※ UNDP는 향후 20년간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천5백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특히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시장규모가 2000년에는 25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각국이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환경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환경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후진국들에 제공될 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국제 환경결제은행을 설립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는 1조달러 상당의 자금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향후 20년간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천5백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특히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시장규모가 2000년에는 25억 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오는 2000년까지 약 3천억~6천억달러가 환경보호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4월 9일 추정했다.

UNDP 보고서는 또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1조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개발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환경보호사업과 관련, 전기자동차 시장이 약 3년전만 해도 전무한 상태에서 오는 2000년에는 2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곤국가의 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UNDP는 보고

서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환경 투자가 선진국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들이 더 많은 환경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UNDP 보고서는 92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 수반들이 합의한 환경보호계획이 지난 5년간 제대로 수행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극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덩이와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쓰레기 공해가 이 처너지까지 공략하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떠다니는 얼음덩어리는 지구온실효과가 얼어붙은 남극대륙에도 밀어닥쳤음을 입증하는 몇가지 증후중 하나로 플라스틱 조각들은 지구 최후의 청정지역중 하나인 남극의 오염을 알리는 홍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얼음덩어리 말고도 애덜리 펭귄 떼의 남방이주, 녹아내리는 얼음때문에 생기는 호수와 수로 등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말해준다.

남극반도 서쪽 변두리의 얼음이 대량 녹아내릴 경우 바다의 수위가 5.5m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거대한 얼음덩이가 조금씩 이완되면서 융해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자연현상이나 지구온난화로 이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칠레남극대륙연구소의 리카르도 하나 연구원은 우려했다.

미국 몬태나대 교수 윌리엄 프레이저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남극대

륙의 기온상승으로 애덜리 펭귄 무리의 최소 30~40%가 지금까지 식했던 섬에서 더 추운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각지에서 모여든 과학자들이 남극대륙에 미치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대륙 전체에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나 연구원은 말했다.

세틀랜드 제도의 11개 섬중 그리니치 섬 이웃에 위치한 리빙스턴 섬의 금년 기온은 최근 수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스페인 연구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기온상승으로 고래같은 대형동물의 먹이가 되는 새우모양의 갑각류 크릴의 생육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한가지 골칫거리는 쓰레기 문제다. 약36년전 남극대륙을 처음 방문했던 다니엘토레스 칠레남극대륙연구소 과학부장은 1천3백64 조각의 쓰레기를 수집했다. 이중 대부분은 방문객들이 남기고 갔거나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류다. 오염의 주범은 대형 공장선과 트롤어선들이라고 토레스는 지적했다. 이런 쓰레기는 남극 환경, 어족, 조류, 포유동물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토레스씨는 바다사자들이 목에 커다란 플라스틱 조각이나 금속불이가 걸려 질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한 번 버려지면 5백년간 오염물질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토레스는 경고했다.

남극대륙 방문자는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동식물군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